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임은의¹, 김학령^{2*}

¹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of a Scale for Business Effectiveness of Microcredit

Eun-Eui Yim¹, Hakyoung Kim^{2*}

¹Dept. of Social Welfare of Far East University

²Ewha Social Welfare Research

요 약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을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와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바탕으로 3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31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28개의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응답지 1부를 제외한 127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3개 요인, 24개 문항의 척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척도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점포운영 요인 5개 문항, 창업만족도 요인 3개 문항, 경영역량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척도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마이크로크레딧의 실천적인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파이낸스, 사회투자금융, 효과성 척도, 이용자 변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scale for business effectiveness targeting microcredit users. For this, based on domestic preceding researchers empirically handling the microcredit and also focus group interviews with users and specialists, total 30 preliminary questions were composed. After that, conducting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argeting 127 finally collected surveys, i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cale validity of three factors and 24 questions was verified. Also, considering the goodness-of-fit of model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iveness scale of microcredit business was determined. The concrete factors included 5 questions of the store operation, 3 questions of business start-up satisfaction, and 16 questions of management competency. Lastly, based on the effectiveness scale of business developed by this study, the research direction and the practical development direction of microcredit was suggested.

Key Words : Microcredit, Microfinance, Social Finance, Effectiveness Scale, User Change

1. 서론

최근에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중시하는 국민 전체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을 향상시켜 취업 가능성을 증진하는 사회투자자를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1].

*This paper has been studied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2015(2015S1A5A8017412).

*Corresponding Author : Hakyoung Kim(dreamonxmas@hanmail.net)

Received April 13, 2018

Revised May 30,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빈곤층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에서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였다. 포용금융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금융의 연속체로서 빈곤층에게 소기업을 위한 소액대출과 같은 단일 상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한데 묶은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 이처럼 국제사회의 복지금융의 조류는 마이크로크레딧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걸쳐 포용금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복지금융의 필요에 부응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 2000년대 민간비영리기관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이 도입되어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방식의 실험적 모델이 구축·운영된 바 있으며, 이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휴먼에프관리재단의 설립에 이어 공공주도의 마이크로파이낸스로 확대, 운영되었다[3].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으로서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4].

이처럼 정책적 논의와 실천 현장에서 사업적 논의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 실정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자립을 통한 빈곤층 탈출에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었으나 규모의 한계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마이크로크레딧이 지니는 다차원적 측면의 효과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채로 논평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성 분석은 개인차원, 가구차원, 사업체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대리변수를 대표적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오고 있다[6]. 국내의 마이크로크레딧의 정확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과 측정에 앞서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이용자의 범위는 개인차원, 가구차원, 사업체차원으로 광범위하다 보니 각 차원에 해당하는 효과성 측정 항목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현실과 마이크로크레딧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측정 항목 개발

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목하였다. 기존 사업체 차원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매출액, 생존, 순수익, 유급고용인원과 같은 결과지표[7]와 사업만족도, 창업후 변화정도와 같은 과정지표[8]가 활용되고 있었는데, 엄밀하게는 결과지표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창업자금 지원과 더불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기술, 사업운영 능력 등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9],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업효과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를 포괄하는 균형있는 척도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성 측정 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와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대상으로 문항을 추출하고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화 검사를 거친 후 척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책무성을 밝혀낼 수 있고 마이크로크레딧과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이어 사회투자금융으로 이어지는 이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이크로크레딧에 관한 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인당 GDP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제공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이 미치지 못한 곳의 개발금융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금융, 사회금융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용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구분되어 사용된다[6].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11]. 1990년대에 마이크로크레딧은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대체되어 사용되지만, 둘 다 금융자본의 도구이며 공적 부문 투자보다는 기업이 정신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말이다[12].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수선하거나 파는 작은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일해서 임금이나 수수료를 받거나, 소규모의 토지, 운송수단이나 가축, 기계나 도구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소

규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3].

1990년대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est)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빈곤퇴치와 젠더 전략을 위한 주요 원조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그 일환으로 1997년 1차 마이크로크레딧서밋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수익성이 있고 자금자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마이크로크레딧서밋은 2015년까지 수혜가구 수를 1억 7,5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결과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14].

한국은 2000년 초반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의 비영리 민간기관을 통하여 마이크로크레딧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처럼 탈빈곤의 목적도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도입 당시 실업자를 대상으로 영세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요 목표로 삼고[3],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및 훈련 지도를 포함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급증으로 정부 주도하에 2009년부터 미소금융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미소금융사업은 설립 후부터 2015년까지 대출건수가 6,878건에서 42,564건, 대출규모가 241억원에서 3,84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다[15].

2.2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논의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해 있다.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은 자영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건강 및 교육 그리고 인과워먼트가 향상되도록 도와 지역 개발에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이와 반대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주로 선진국에서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데, Sanders(2002)는 빈곤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창업을 하여도 1년 이내 폐업하는 수가 1/3에 이르고 있어 극소수의 빈민들만이 빈곤에서 탈피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회의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18].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며,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 Domestic researches on microcredit effect

	individual	household	business
Kim (2006) ^[6]	life satisfaction program		sales, business satisfaction
Chung et al.(2008) ^[19]			survival or not
Yim et al.(2015) ^[20]			survival duration
Chung (2008a) ^[21]			sales, net profit
Chung (2008b) ^[22]	self-competence	exit from the public assistance	net profit
Ryu (2008) ^[7]			sales, paid employment, net profit
Sung et al.(2009) ^[23]	psychological stability empowerment	income	
Baek et al.(2010) ^[24]			sales, change after start-up
Kim et al. (2011) ^[24]	social participation, donation	exit from the public assistance, income increasing, living environment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와 그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효과에 대한 측정변수는 개인차원, 가구차원, 사업체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Table 1에 의하면 개인차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생활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8], 자기유능감[22], 심리적 안정과 임파워먼트[23], 사회참여 확대와 기부행위 증가[25]와 같은 변수가 이용되었다. 가구차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급탈피[22,25], 소득[23,25], 거주환경 개선[25]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사업체 차원의 경우 매출액[7,8,21,24], 사업 만족도[8], 생존 여부[19], 생존기간[20], 순수익[7,21,22], 유급고용인원[7], 창업후 변화정도[24]의 변수로 측정되었다.

2.3 마이크로크레딧의 사업체 차원의 효과에 관한 논의

마이크로크레딧의 사업체 차원의 효과를 파악하는 대리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정리한 Table 1에서 크게 매출액, 생존, 순수익, 유급고용인원과 같은 결과지표[7]와

사업만족도, 창업후 변화정도[8]와 같은 과정지표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궁극적 목적이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에 있지만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관점을 포함한 과정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방증하고 있다[6,26,27]. 그러나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경제적 관점의 결과지표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24,28]. 왜냐하면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대한 개념과 측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빈곤층의 경제적 자활에 대한 기회 부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의 결과지표가 계량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26].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결과지표로 확인하는 것은 자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용자의 내면성장과 빈곤극복의 지 및 자신감 제고 등과 같이 자립 역량 향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2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창업자금 지원과 더불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기술, 사업운영 능력 등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9,30].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업효과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 창업 이후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의 경제적 관점과 사회심리적 관점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창업 이후의 변화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척도 개발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26].

창업 이후의 변화는 이용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일부 연구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밝혀졌는데, 이용자의 경험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사업의 효과를 개선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10].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마이크로크레딧은 소득 증대는 물론 창업을 통해 대외적 신뢰도의 증가, 직업 및 경영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 비경제적 자산의 증대 효과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백학영 외(2010)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리더의 경영적 마인드와 경영능력은 생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소규모 조직 특성상 대표의 경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24].

사업체 차원의 사회심리적 관점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업만족도, 변화정도, Q방법론을 사용하여 이용자 효과의 과정지표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된 사업체 차원의 운영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는 점포 운영, 창업 만족도, 경영역량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에 대한 국내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효과 개념과 관련된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히기 어려워 질적 연구를 통해 측정 항목 개발이 요구된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마이크로크레딧의 사업체 차원의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의 일차적인 단계로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이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을 하였다.

개인 심층면접 대상자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수행하고 있는 3개의 민간 NGO기관에 의뢰하여 6사례를 추천받았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2015년 8월에 1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s)를 실시하여 개별 면접을 통해 도출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 사회복지학 박사 2인, 경제학 전공교수 1인, 경영학 박사 1인, 현장 전문가 3인이 참여하여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나 이해가 어려운 어휘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예비조사는 2016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4월에서 5월까지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12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응답한 1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27개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타당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예비척도의 구조를 분석하고 하위 요인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고유요인은 제거하기 위해 축소상관행렬을 사용한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Principal-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요인회전방법은 사각회전법(Oblique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점포운영, 창업만족도, 경영역량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요인별 문항은 신뢰도 분석을 거쳐 수정된 문항을 제외시켜 차례대로 5개 문항, 3개 문항, 16개 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KMO,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고유치(eigenvalue)와 누적변량비율, 스크리검사,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3.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점포운영 5개 문항, 창업만족도 3개문항, 경영역량 16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모형의 적합도는 x2통계량, RMSEA, CFI, TLI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성된 모형에 대하여 Cronbach's alpha의 신뢰도 평가를 통해 최종 모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판별타당도를 위해 전체 척도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업체와 사업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여성 사업주 71.7%, 남성 사업주 28.3%로 나타났다. 연령은 주로 40~50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40대가 52.8%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학력은 대학중퇴 및 대졸이 54.3%로 가장 많았고, 고교중퇴 및 고졸이 38.6%이었으며, 중졸이하, 대학원이상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이혼이 46.5%로 가장 높았고, 기혼 34.6%, 미혼 12.6%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건강하거나 보통수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 여부는 경험이 없는 신규창업이 66.9%에 비해 기존 창업경험자는 33.1%이라고 밝혔다. 업종의 경우 일반서비스업이 30.7%, 도소매업이 29.1%, 음식점업이 22%, 사회서비스업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Frequency	%
sex (n=127)	male	36	28.3
	female	91	71.7
age	30 or less	17	13.4
	40s	67	52.8
	50s	36	28.3
	more than 60	7	5.5
level of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	4.0
	high school	49	38.6
	university	69	54.3
	graduate school	4	3.1
marriage status	unmarried	16	12.6
	married	44	34.6
	bereavement	6	4.7
	separation	1	0.8
	divorce	59	46.5
	others	1	0.8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1	0.8
	unhealthy	6	4.7
	usually healthy	52	40.9
	healthy	56	44.1
	very healthy	12	9.4
founding experience	new	85	66.9
	existing	42	33.1
sector	food business	28	22.0
	retail and wholesale	37	29.1
	common services	39	30.7
	social service business	17	13.4
	manufacturing	5	3.9
	others	1	0.8

4.2 신뢰도 분석 결과

질적 연구와 예비조사 그리고 내용타당도를 통해 구성된 사업체 효과성 관련 문항은 30개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α 계수방법과 측정의 표준오차, 문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알파계수를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8이상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항을 제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 효과성 척도의 총 30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하여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값을 고려하면서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가 .3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사업체 효과성은 점포운영, 창업만족, 경영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이중 5번(창업 당시에 비해 고객이 증가하였다), 6번(우리 사업체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7번(우리

사업체는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9번(우리 사업체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번(우리 사업체는 사업이 안돼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12번(나는 사업이 안돼 괴롭다)이 삭제되어 24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성형 검증지표를 검토하였다. KMO값은 0.8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Table 3. Sampling adequacy for factor analysis

KMO	Bartlett's test for sphericity		
	χ^2	df	p
.885	1587.041	276	.000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 효과성의 KMO는 .885로 표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 < .000$ 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사업체 효과성은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3개 요인 모두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수는 TLI, CFI, RMSEA를 모델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형 분석 결과 $\chi^2=472.874$ ($df=249$, $p < .001$)으로 나타나 카이제곱 검증은 기각되었다.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모델적합지수는 TLI=.807, CFI=.840, RMSEA=.088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Item		Factor		
		1	2	3
1	Facilities or equipments have been expanded	.041	.255	.634
2	More employees have en recruited	.085	.248	.400
3	Quality of product/service has been improved	.204	.089	.643
4	Loan repayment has been decreased	.107	.121	.517
8	Net profit is increasing	.109	-.096	.726
11	I think it was such a good decision to start-ups	.225	.829	.192
13	I enjoy working through starts-up	.279	.774	.154
14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while working	.224	.819	.191
15	I have learnt the procedure and process of start-ups preparation	.565	.469	-.005
16	I have obtained an eye for business district	.596	.295	.137
17	I have obtained a skill to write a business plan	.664	.135	.083
18	I have obtained the expertise and skills suitable for the business type	.607	.338	.150
19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read the market trend or change	.691	.318	.112
20	I have obtained a skill to use diverse sales promotion methods	.644	.054	.095
21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receive customers based on kindness and service	.680	.319	-.025
22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understand which products /services customers want	.652	.362	.173
23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smoothly handle customers' dissatisfaction	.685	.441	-.037
24	I have obtained the know -how to secure regular customers	.726	.260	.010
25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fully understand the overall conditions of business place	.625	.378	.304
26	I have no difficulties to manage employees	.509	-.026	.326
27	I got to know how to maintain the business when it goes better than expectation	.686	.181	.349
28	I have obtained an ability to cope with business hardship	.704	.068	.404
29	I have no difficulties to make decisions in the management process.	.681	-.130	.431
30	I got to know how to succeed in my business area	.708	.105	.369

Table 5. Correlation of the scale for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of microcredit

	A	B	C
A	1		
B	.322**	1	
C	.419**	.565**	1

**p<.01
A : Store operation, B : Business start-up satisfaction, C : Management competence

또한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판별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85보다 작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 요인들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7 이하이며 VIF 값이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판별타당도를 거쳐 확증된 사업운영 효과성 척도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3개 요인과 일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점포운영에 있어서 순수익과 유급고용인원은 동일하나, 매출액과 생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점포가 생존되고 있다는 자체로는 점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위요인인 경영역량과 관련된 과정지표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창업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노력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지원사업의 책임성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운영 효과성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국내외 선행연구,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심층면접, 마이크로크레딧 현장 실무자의 FGI을 통해 1차적인 측정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전문가의 문항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 수정이 이뤄졌으며,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데이터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를 거쳐 척도 문

항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효과성 척도는 점포운영, 창업만족, 경영역량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점포운영 5개 문항, 창업만족 3개 문항, 경영역량 16개 문항으로 전체 2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 효과성 척도는 결과지표나 과정지표에 대해 부분적으로 효과 측정을 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이용자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업지원활동을 펼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후반기관에 사업노력을 포함하여 성과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점포 운영, 창업만족도, 경영역량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어 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풍부한 조사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 역량이나 가구 차원의 효과성은 언급하지 않아 개인차원과 가구차원의 후속적인 효과성 척도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자면, 첫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역량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의 한계는 중사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으로 타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에 재교육이 보장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창업 시작 전에 보다 장기적인 경영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의 창업과 관련된 경영교육은 이론 위주여서 실제적인 운영과 괴리를 겪는 점을 목도하게 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프로젝트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창업단계 별 모의실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학습방법 편제에 따른 교육매뉴얼, 교육과정이 실험적으로 개발되어 현장밀착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이크로크레딧 업체의 판로와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 주도의 상품 물이나 사회적 기업 제품 전용 이로운 물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측의 역량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 틀을 넘어서는 시장 확대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업체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윤리적 소비에 대해 대중적인 의식을 고취

하는 사회운동이 병행되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별 주체들의 연합의 필요성이 촉구되는 바이다.

셋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도입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 경험이 축적되고 운영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원업체가 담당해야 할 업체들이 많아짐에 반해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에서 직접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창업 발전 단계 별 관리 요소를 정형화하고 지원업체의 욕구 사정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적 개념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REFERENCES

- [1] K. R. Song. (2017). *New Thing on Inclusive Nations in Korea*. Seoul: 21cbooks Publishing Co.
- [2] E. Rhyne. (2009). *MICROFINANCE for BANKERS and INVESTORS*, Washington, DC, McGraw-Hill.
- [3] E. E. Yim & E. J. Park. (2013). Policy Changes on the Microcredit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 234-246.
DOI : 10.5392/JKCA.2013.13.01.234
- [4] Sisa Journal. (2018). Deregulation of establish stage in the Social Finance Bank.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2147>
- [5] Y. S. Jung & K. Y. Lee. (2013). Trends of International Microcredit Industry and Less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mile Microcredit Bank. *Korea Development Economic Association*, 19(1), 35-79.
- [6] E. E. Yim. (2015). Study on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Economic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2), 1-12. DOI : 10.14400/JDC.2015.13.12.1
- [7] M. H. Ryu. (2008). The study of the outcome for the labor welfare program: Micro-enterprise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1), 41-62.
- [8] S. G. Kim. (2006). Study on result of business startup support program for female breadwinners : Focused on contribution case toward society of S life insurance compan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9] C. G. Park. (2010). Microfinance and Business Education in Korea, *Korea Business Review*, 13(3), 87-117.
- [10] Y. J. Im, E. E. Yim, S. K. Park & Y. S. Lee.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 of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Low-income Female Single Parents after using Microcredit-Q Methodological Application. *Korea Family Welfare*, 45, 121-147.
- [11] N. Schreiner & J. Morduch. (2001). *Replicating Microfinance in the United Stat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dited by Jim Carr and Zhong Yi Tong, Replicating Microfinance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Fannie Mae Foundation.
- [12] K. Lamia. (2015).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Seoul, Maybook Publishing.
- [13] R. Marguerite. (2001). *The Microfinance Revolu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 [14] L. Mayoux. (2002). Women's Empowerment and Participation in Micro-Finance: Evidence, *Issues and Ways Forward*, 1.
- [15] Y. S. Chung & S. Y. An. (2017). So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Microfinance Programs: Comparison of Korea and U.K. *Korea Social Policy Review*, 24(3), 27-53.
- [16] P. Clark & A. Kays. (1999). *Microenterprise and the Poor: Findings from the Self-Employment Learning Project Five-year Study of Microentrepreneur*,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17] S. Raheim & C. Alter. (1995). Self-employment as a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vention for recipients of AFDC,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5(1-2), 41-61.
- [18] C. K. Sanders. (2002). The Impact of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of Program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and other low-wage worker, *The Social Service*, 76, 321-340.
- [19] Y. S. Chung & Y. K. Song. (2008). Survival Probability and Multivariate Survival Analysis of Micro-enterprises after Start-up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1), 307-332.
- [20] E. E. Yim. (2015). The Study on Survival of Microcredit Start-up : Focused on the Poor Single Mother. *Woman Study*, 88(1), 373-402.
- [21] Y. S. Chung. (2008a). Determinants of the Financial Outcomes of Micro-enterprises, *Korea Social Welfare Policy*, 33(3), 531-557.
- [22] Y. S. Chung. (2008b). A Path Analysis of the Impact of a Micro-Enterprise Support Program on the Participants Increased Income and Independence from Public Assistance, *Social Security*, 24(4), 89-115.
- [23] J. H. Sung & J. H. Kim.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icro-Credit Loans for the Low-income Female Heads : The Case of "urgent support cash sos project" of Korean Women Fund, *The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21, 73-95.

- [24] Y. Baek, S. E. Cho, K. H. Kim & K. H. Kim. (2010). The Study of the Sustainability and Business Potential of the Self-employment Community Supported by Korean Microcredit Joyful Union, *Social Welfare Policy*, 37(2), 291-324.
- [25] S. Y. Kim & B. H. Park. (2011). A Study on the Social Values of the Micro-Credit: Focusing on the case study using SROI model. *Social Welfare Policy*, 38(1), 277-304.
- [26] T. Y. Um. (2014). A Study on Developing a Scale for Emotional Self Sufficiency, *Korea Social Policy*, 21(4), 81-102.
- [27] E. J. Lee. (2014).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539-548.
DOI : 10.14400/JDC.2014.12.2.539
- [28] I. O. Jeon. (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103-114.
- [29] T. Y. Um & J. S. Im. (2014). Study on Self-support performance of Participants of Self-support: Focusing on Participants of Local Self-support Center in Daegu province, *Social Welfare Policy*, 41(3), 79-105.
- [30] V. Hartarska. (2005).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World Development*, 33(10), 1627-1643.
- [31] World Bank. (1989).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임 은 의(Yim, Eun Eu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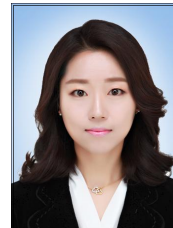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조직, 노인복지
- E-Mail : empower@kdu.ac.kr

김 학 령(Kim, Hak Lyoung)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 E-Mail : dreamonxmas@hanmail.net